

스타 PD의 검은 거래...부서진 '연습생의 꿈'



▶엡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을 통해 데뷔한 그룹 엑스원. 사진제공 | 스텔엔터테인먼트

2009년 케이블채널 엡넷 '슈퍼스타K' 이후 10년 동안 쌓여온 '오디션 성공 신화'가 무너졌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영한 엡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프듀X) 제작진의 투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를 주도한 연출자 안준영 PD와 김용범 책임프로듀서(CP)가 구속됐다. 이들이 일부 연예기획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오디션에서 최우선시해야 할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는 부정과 비리로 시청자에게 비치고 있다. 연예계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추이를 주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오디션 열풍 주역의 추락

오디션 프로그램은 '슈퍼스타K' 이후 지상파·케이블·종합편성채널 등 모든 방송사가 한꺼번에 꼭 다룬 인기 아이템이다. '슈퍼스타K'가 일으킨 신드롬급 인기와 화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예능프로그램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했다. 이후 10년 동안 각 방송사가 꾸준히 활용하는

수백만원대 접대·증거 인멸 시도...대형 기획사와 결탁 정황 투표 조작으로 혜택 본 멤버 소속사 안 밝혀져...공금증 확산 신뢰 잃은 오디션 프로...기획사 내부 육성 중요성 다시 확인

배경이 됐다. 하지만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사태는 10년간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프듀X'는 일본 버전이 현지 지상파 채널 TBS에서 방영 중이어서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

그 중심에 현지 연출자가 있다는 점에 시청자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일부 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안준영 PD는 논란이 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획사가 투표 조작으로 혜택을 본 멤버가 소속된 곳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향응을 받은 것만으로도 의혹의 시선은 확산되고 있다.

안 PD와 김용범 CP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을 주도한 주역이다. 안 PD는 '프로듀스' 시즌 1~4를 모두 연출했

며, 김 CP는 시즌2부터 총괄 기획자로 합류했다. 앞서 김 CP는 현업PD 시절 '슈퍼스타K' 시즌1~3 연출을 맡았으며, 안 PD와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들은 '악마의 편집'과 긴장감을 자극하는 연출 방식 사이에서 논란을 사기도 했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장르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입지를 굳혔다.

일각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특성상 동일한 연출자가 프로그램을 오래 맡는 시스템을 경계하고 있다. KBS 제작본부의 한 관계자는 6일 "노하우와 전문성 등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권력이 쥐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그 부정적 형태가 바로 '프듀X'의 투표 조작이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가요 생태계 정화의 희망

가요계는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관계자들은 음원과 음반의 기획·제작·유통까지 아우르는 대기업 CJ ENM의 방송 제작진이 일부 연예기획사와 결탁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연습생들의 꿈까지 박탈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힘 없는' 중소형 기획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입지가 좁은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시선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제 '프로듀스' 등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 방'에 뜨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면서 "기획사들의 자체 육성 시스템 안에서 연습생들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거쳐 데뷔하는 방식이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힘을 과시해온 케이팝의 비약적 성장은 오랜 연습생 기간을 거쳐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쌓은 이들이 이끌고 온 힘"이라며 "방송사가 나서서 가수를 '제작'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비슷한 포맷 오디션 프로그램 '직격탄'

경찰, '프듀' 전 시즌 조사 확대 오디션 준비 타 방송사들 '축각'

엡넷 '프로듀스X101'(프듀X)의 연출자 안준영 PD 등이 11명의 아이돌 그룹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일부 기획사와 대가성 거래를 한 혐의로 5일 구속되면서 '프로듀스' 전 시즌을 비롯한 다른 엡넷 오디션프로그램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시선이 쏠린다.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다른 방송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7월 19일 종영 직후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인 '프듀X'를 수사하면서 시즌 1~3과 걸그룹 선발 과정을 담은 '아이돌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진행한 경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프듀X' 제작진의 구속으로 순위 조작 및 제작진과 일부 기획사의 유착 의혹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프로듀스' 전 시즌과 '아이돌학교'의 순위 조작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오디션프로그램을 향한 대중의 신뢰가 바닥난 상황에서 현재 방영하거나 내년 방송을 준비하는 다른 오디션프로그램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가장 먼저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프로그램은 10월4일 시작한 엡넷의 아이돌 그룹 선발 프로그램인 '투 비 월드 클래스'다. 제작진은 "영상 플랫폼인 네이버 V라이브 계정 구독자들이 투표하고 매주 그 데이터를 공개한다"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청자 사이에서는 이미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존재감도 미미하다. 투표 시스템도 겸한 V라이브 계정의 구독자가 2만여 명에 불과할 만큼 화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프듀' 논란과 '투 비 월드 클래스'의 부진에도 엡넷은 내년 초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십대가수' 제작을 고수하고 있어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월5일 시작한 채널A '보컬플레이: 캠퍼스 뮤직 올림피아드'나 14일 선보이는 MBN '보이스퀸', 내년 1월 방송할 T V조선 '미스터트롯' 등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에 차질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의 깊게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시청자의 힘으로 밝혀낸 투표 조작

멤버 확정 직후 투표 결과에 의문 진상규명위 결성해 '공론화' 앞장

시청자의 행동이 결국 변화를 일구었다. '프로듀스X101'(프듀X)는 물론 '프로듀스 101' 등 시리즈의 문자 투표에 참여하며 아이돌 스타를 직접 배출해낸 '국민프로듀서', 즉 시청자들이 제작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 온 시청자들은 '프듀X'가 11명의 멤버를 최종 확정할 7월19일 생방송 직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일 제작진이 공개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에 의문을 품은 것이었다. 최종 멤버로 유력하게 꼽힌 후보자들이 탈락한 반면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합류했다는 시선이 출발이었다. 방송 직후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시청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각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한 배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논란은 증폭됐고 시청자들은 행동에 나섰다.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를 조직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또 제작진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수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월23일 온라인 펀딩도 시작했다. 목표액 330만원은 단 1시간 만에 모였다. 또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 각 언론사에 보내는 등 공론화에도 나섰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됐지만 방송사인 엡넷은 침묵으로 일관해 더 큰 빈축을 샀다. 이는 시청자들의 결집을 자초한 꼴이 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명백한 취업 사기이자 채용 비리"라며 "방송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유튜브를 통해 "문자 투표로 100원씩 받았기 때문에 통신사에 요청하면 조작 여부 확인은 간단하게 이뤄질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힘을 보탤다.

의혹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엡넷은 결국 7월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대로 시청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8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이에 참여한 시청자는 모두 378명이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심은진에 악플 단 여성 '징역 5월'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연기자 심은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여성은 지난해 심은진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박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현석, 협박 혐의 피의자로 조사 예정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50)이 협박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6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23)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기한 A씨를 회유·협박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조만간 양현석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캐릭터 펭수, 외교부 홍보 영상 촬영



펭수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펭인 캐릭터 '펭수'가 국가 행사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에도 나섰다. 펭수는 11월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6일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외교부는 "펭수가 외교부 소개 및 전반적인 홍보를 담은 영상을 촬영한다"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펭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도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슈퍼엠, 대한항공 엠버서더 선정

그룹 슈퍼엠이 대한항공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6일 "슈퍼엠이 대한항공 글로벌 엠버서더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슈퍼엠의 7명 멤버 사진과 'SuperM'이라는 글자가 래핑된 비행기도 공개했다. 이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형식의 기내 안전 비디오도 4일부터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선보이고 있다. 슈퍼엠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뒤 11일부터 북미 지역에서 '위아더 퓨처 라이브' 공연을 연다.